

조기성문암에 대한 레이저 성대절제술과 방사선치료 결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교실,¹⁾ 중앙방사선과학교실²⁾
정광윤¹⁾ · 박지훈¹⁾ · 양대식²⁾ · 최명선²⁾ · 최 건¹⁾ · 최종욱¹⁾

배경 및 목적 : 조기성문암의 치료방법은 방사선치료, 레이저 성대절제술을 포함한 보존적 후두절제술 등의 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술자들마다 다른 치료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기성문암의 치료에 레이저의 적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의 방법들에 비해 여러가지 장점이 있으면서 치료율도 우수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저자들은 조기성문암에 대해 레이저 성대절제술과 방사선치료의 치료결과를 분석하여 조기성문암의 치료에서 레이저 성대절제술의 적용방법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89년부터 1998년까지 10년간 본원에 내원한 조기성문암 환자 중 의무기록이 잘 보존된 95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남자가 90례, 여자가 5례이었다. 이중 T1이 76례, T2가 19례 이었다. 최초치료방법, 국소재발 유무, 재발후 치료방법, 후두보존 유무, 생존율 등을 환자의 병력 기록을 통하여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 최초치료로 방사선치료를 시행했던 51례 중 T1a가 25례 중 2례, T1b가 15례 중 5례, T2가 11례 중 6례

총 13례에서 최초치료에 실패하여 이중 보존적 후두절제술 4례, 후두전적출술을 9례에서 시행하였다. 레이저 성대절제술을 시행한 44례 T1a가 24례 중 7례, T1b가 12례 중 4례, T2가 8례 중 3례 총 14례에서 재발하여 이중 보존적 후두절제술을 4례, 방사선치료를 10례에서 시행하였다. 이중 방사선치료에도 잔존한 4례 중 구제수술로 1례에서 보존적 후두절제술을 3례에서 후두전적출술을 시행하였다. 3년생존율은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93.7%, 레이저 성대절제술을 시행한 경우가 90.9%이었다. 후두보존이 가능하였던 경우가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51례 중 9례(17.7%), 레이저 성대절제술을 시행한 경우가 44례 중 3례(6.8%)이었다.

결 론 : 조기성문암을 치료함에 있어 T1은 방사선치료가 T2에서는 레이저 성대절제술을 시행한 경우가 치료율이 높았으나 생존율은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레이저 성대절제술을 시행한 경우가 방사선치료에 비하여 후두보존율이 높았다.